

아양산 자락에 '치유 숲' 추가 조성

정읍시 2026년까지 50억 투입 51.8ha에 편의시설 등 조성 정읍사 숲길 연계 힐링 명소 기대

정읍 아양산 자락에 조성된 '아양 사랑 숲' 외에 또 하나의 도시형 치유숲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양동 아양산 일원에 51.8ha(51만8000㎡) 규모의 도심 속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심 속 치유의 숲은 시민들에게 스트레스와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산림 치유 공간을 말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이미 마쳤으며 2024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완료한 후 2025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치유의 숲에는 치유프로그램 안내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치유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색깔과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향기 치유정원'과 산바람을 느끼며 누구나 편안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풍요장', 명상과 사색의 치유 활동 공간인 '명상의 숲' 등이 갖춰진다.

이와 함께 숲 곳곳에 통나무 의자와 야외탁자, 평상 등을 설치해 등산객과 인근 주민의 담소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정읍사 숲길과 정읍사 공원,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과 연계해 정읍의 대표적 힐링 명소가 될 전망이다.



정읍시가 계획한 아양산 자락의 새로운 '도심형 힐링 치유 숲' 예정 부지.

이학수 정읍시장은 "도심 속 산림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힐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년에 조성하는 치유의 숲이 산림복지 제공의 도화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내년 예산 7697억원 확정

전년 대비 6.58% 증가... '고창 방문의 해' 관광인프라 확충 중점

고창군의 2023년도 예산이 769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창군은 고창군의회가 승인한 내년도 고창군의 본예산은 일반회계 7547억401만원, 특별회계 150억6644만원 등 총 7697억7045만원이라며 전년도 본예산 7222억2928만원보다 6.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도 8669억747만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2023년 고창군의 예산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됐다. 특히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299억원(고창군 제2정사 신축 35억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15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194억원(자연재해취약개선지구 정비사업 11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 등) ▲교육 63억원(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지역인재사업 37억원, 청소년 자치·예술 미래공간 신축 10억원 등) ▲문화 및 관광 568억원(도서관 건립사업 62억원, 달빛노을양고 살재 조성사업 28억원,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사업 25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1899억원(기분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60억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66억4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0억원 등) ▲환경 781억원 ▲사회복지·보건 163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4억 ▲교통·물류 분야 329억원 등이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 터미널 부지매입 비용 131억원이 편성됐고 '상하구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에 첫 삽을 뜨기 위한 예산 18억원도 편성돼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내년 일반고 신입생 1만3837명 모집

26~28일 원서접수

전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6~28일 전북지역 일반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평준화일반고(39개교) 1만78명, 비평준화일반고(54개교) 3759명이다. 평준화지역별 모집인원은 ▲전주시(23개교) 6244명 ▲군산시(8개교, 군산상일고 포함) 1944명 ▲익산시(8개교) 1890명 등이다.

이에 앞서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는 12~14일, 전북외국어고는 지난 19~21일 각각 원서접수를 마쳤다.

합격자는 ▲자율형사립고(상산고) 30일 ▲특수목적고(전북외국어고) 30일 ▲평준화일반고(39개교)·비평준화일반고(54개교) 내년 1월 6일

발표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후 평준화일반고 학교 배정을 위한 공개 추첨을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학생의 성적과 거주지는 반영하지 않으며, 지원한 학교 지망 순서를 고려해 학교를 배정한다.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정보보다 많은 경우 지망지를 수험번호순으로 정렬한 뒤 배정기준과 간격을 적용해 추천한다.

평준화일반고의 배정학교 발표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http://satp.jb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와 지체장애인 및 희소병 질환자, 다자녀 대상자는 일반배정에 앞서 선배정의 우선권을 갖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이장 형제, 갓 구운 봉어빵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정읍시 영원면 운학마을 형제 시청 인근에 나눔 부스 꾸려 8년째 겨울마다 무료 나눔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맛있게 드셔서 행복합니다." 이웃을 위해 8년째 사랑의 봉어빵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장 형제가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주인공들은 정읍시 영원면 운학마을 김영중(71) 이장과 백양마을 김해중(69) 이장. 이들은 20일 정읍시청 주차장 한쪽에 사랑의 봉어빵 나눔 부스를 꾸려 시청을 찾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갓 구운 봉어빵을 나눠줬다.

형제의 선행은 8년 전 시작됐다. 이들은 2015년 봉어빵 기계를 구매해 해마다 겨울이면 봉어빵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웃에게 소소하지만 따뜻한 봉어빵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이들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영원면에서 일주일마다 두 차례 봉어빵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는 봉어빵이지만 팔알곰 등은 모두 최상급을 사용해 맛도 좋다.

형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사랑의 백미를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영원면사무소에 230만원 상당의 백미



정읍 영원면 운학마을 김영중(71) 이장과 백양마을 김해중(69) 이장이 정읍시청 주차장 한쪽에 사랑의 봉어빵 나눔 부스를 꾸려 시청을 찾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갓 구운 봉어빵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시 제공>

10kg 100포를 맡겼다. 김영중 이장은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곤충 특별전'

내년 2월 12일까지

남원시의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색(色) 다른 곤충들'을 주제로 '2022년 겨울방학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채로운 색을 가진 곤충 테마로 기획된 전시회는 '곤충의 색', '보랏빛 숲속' 등의 전시공간과 '곤충 낚시체험', '수서곤충 관찰하기', '모래 놀이터' 등의 체험공간으로 꾸며졌다.

곤충의 색을 주제로 한 전시작품과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10여 종 500여 마리의 국내 자생곤충, 어둠(암실) 속에서 만나는 야광 생물 전시 관람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다양한 곤충의 색을 담은 '곤충의 색' 공간은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색 곤충 전시작품 외에도 부를 상징하는 비단벌레와 행복을 상징하는 나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곤충 예술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입장·관람할 수 있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설 당일과 연휴 다음날인 1월25일 휴관한다. 단 가족단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설 다음날인 1월23일은 정상 운영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겨울 사랑의 도시 남원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이번 특별기획전 관람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색(色)다른 추억을 그려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